# 마을자치연금 두동편백마을 준공

## 익산시, 제3호 준공식… 민관 공동 프로젝트 확대

마을자치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익산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4일 두동편백마을에서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3호 준공식을 개최하며 농촌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민관 공동 프로젝트의 확대를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김병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부장, 채유신 한솔테크닉스 상무,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익산 농촌지역 마을 대표 그리고 두동편백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다.

두동편백마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조성으로 발생한 수익금과 기존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해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부터 35명의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을자치연금은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 노인빈곤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했다.

익산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함열읍 금성마을에 이어 두동편백마을에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했다.

완주군 도계마을, 서산시 중리마을을 포함하면 전국에 있는 총 5개의 마을자치연금 마을 중 익산시가 3개 마을을 보유해 농촌 공동체 회복 기반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업 관련 사항과 지급·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안정적인 운영 근거와 사업 추진의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주관하고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4.4만세운동 105주년 기념식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4.4만세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 '숭고한 애국 정신 되새겨'

## 익산시, 4·4만세운동기념공원서 105주년 기념식 개최

익산시가 4.4만세운동의 함성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4일 익산시가 주관하고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전영철)가 주최하는 4.4만세운동 105주년 기념식이 항일독립운동기념관 4.4만세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및 보훈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전춘식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영철 회장의 대회사와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문승초 순국열사 후손대표의 유족인사와 참석 내빈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 됐다.

익산 4.4만세운동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1919년 4월 4일 남부시장에서 오산면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와 도남학교 문용기 열사가 주도해 1천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일본에 항거한 날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105년 전 하나 된 힘을 보여준 선조들처럼 시민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익산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경제회복 이끄는 기업소통정책 돋보여

## 투자기업 지역 정착 성장…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운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군산·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이 늘어나고 기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기업소통 정책을 시행해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다.

먼저 군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지원 원스톱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지원 원스톱 TF팀'을 통해 군산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투자 상담부터 인·허가 행정처리, 인센티브, 맞춤형 인력양성, 정주여건까지 도맡아 해결해주고 있다.

이런 복잡하고 수많은 행정 처리를 군산시가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관계부서가 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친기업 활동을 위해 시작한 공무원 후견인제도 확대된다. 2024년부터는 전북자치도 최초로 '군산시 기업지원 QR코드'를 제작하여 관내기업에게 직접 배부한다.

'군산시 기업지원 QR코드'만 있으면 기업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캔만으로 각종 기업지원 소식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기업활동 애로사항까지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진다.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여기에 맞춰 시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청년 기업 성장을 돕는 '청년기업 인증사업'도 추진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군산시는 올 초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업애로사항에 대해 더욱 빠른 신속 해결을 위해 군산국가산업단지 내에 기업지원계를 신설한 것이다.

기업지원계는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과 산단 근로자들의 숙소 및 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각종 기업지원사항을 한데 모아 '중소기업 종합 지원시책' 책자도 제작 배부해 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제회복의 중심에 있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운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5개 지자체와 '전북방문 캠페인' 협약

익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북자치도 지자체, 관광업계와 힘을 모은다.

시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익산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윤)과 '전북방문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7개 공공기관과 7개 여행업체가 참여했다. 공공기관으로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참여했다.

여행업체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소라여행기획 △㈜에이앤드티 △㈜한그루 △㈜코앤씨 △㈜디앤지투어 △석도국제휴리㈜가 함께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업계는 익산을 비롯한 전북자치도 지자체의 테마별 숙박여행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익산은 하림치킨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 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익산 치킨여행을 위해 들려야 하는 맛집으로는 남부시장 치킨 특화 거리의 깨통닭이 유명하다. 하림은 망성면 ㈜하림 본사와 함열읍 제4산단 내 하림 퍼스트 키친(Harim First Kitchen)에서 진행되는 산업 관광형 푸드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킨을 좋아한다면 누구라도 익산으로 놀러 오시기를 추천해 드린다"며 "치킨뿐만 아니라 생크림찹쌀떡 등 간식 맛집, 육회비빔밥 등 한식 맛집이 많으니 잊지 못할 최고의 미식여행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재산 추적 조사 나서

군산시가 재산을 몰래 가상자산으로 숨겨 놓고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상대로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가상자산을 물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군산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더욱 급증함에 따라 가상 자산 추적 및 징수 활동에 더욱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산 은닉행위 관련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 수집 확대,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4년 올해 역시 500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 623명에 대하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 고팍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결과 검토 후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납세과 서준석 과장은 "가상자산 압류·처분 외에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4·10 총선 대비 투개표지원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오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5일부터 11일까지 시청 상황실에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선거사무의 완벽한 이행과 공정한 선거관리, 선거추진 상황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을 총괄담당으로 선거지원상황실(행정지원과)를 설치하고, 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사전)투표사무원 교육 등을 통해 공명선거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투·개표 진행 상황 보고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시청 상황실에 별도로 투개표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읍면동의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국·소장별 3개 읍면동을 지정해 선거 특이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신규 입주기업 모집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로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콘텐츠팩토리(해망로 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 시기는 오는 6월 1일이며 최초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단,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 소재 기업의 경우 선발 시 가산점이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